

스마트 팜 관련 스크랩

2019. 3. 01. ~ 3. 31.

페이지	제 목	비 고	유형
2-5	[아이엠파머] ‘삼성맨’ 이었던 청년, 스마트팜으로 ‘워라밸’ 하다	신아일보	인터넷
6-7	실용화재단, ‘스마트팜 패키지’ 로 북방시장 개척	팜인사이트	인터넷
8-9	‘요즘 대세’ 스마트팜, 다양한 노지작물 재배에도 적용	한국농어촌 방송	인터넷
10	GCT, 中에 ‘한국형 스마트팜’ 만든다	한국경제	인터넷
11-12	GS건설, ‘스마트팜’ 신사업으로 추진	건설경제	인터넷
13-14	이가ACM,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건축설계’ 당선	건설경제	인터넷
15-16	장애청년 위한 스마트팜 건립에 써달라...30억 상당 토지 기부	노컷 뉴스	인터넷
17-18	고흥군, 1100억원 규모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 확정	매일일보	인터넷
19-20	밀양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경남도민 신문	인터넷
21	충남농기원, ‘충남 특화작목의 미래’ 스마트팜 활용에 달렸다	SBN 서해신문	인터넷
22	경산시, 스마트농업도시 추진상황 간담회 개최	뉴스웨이	인터넷
23	서귀포농기센터, 농가 5곳 스마트팜 보급	한국 농어민신문	인터넷
24-25	괴산군, 스마트농업 선도	충청일보	인터넷

[아이엠파머] '삼성맨'이었던 청년, 스마트팜으로 '워라밸'하다

☞ 박성은 기자 | ☎ 승인 2019.03.12 00:00 | 💬 댓글 0

| 귀농 7년차 토마토 스마트팜 운영 청년농 황종운 따옴농장 대표



스마트폰으로 온·습도 등 생육환경 자동제어...생산성 높여
“충분한 사전 교육과 실습으로 리스크 줄이는 게 중요” 강조

“스마트팜으로 ‘워라밸’이 가능해서 좋고, 무엇보다 농사가 손에 익고 재밌다보니 출근길이 즐겁습니다.”

전직 ‘삼성맨’이었던 30대 청년이 고향 땅에 내려와 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다. 누군가는 경험도 없이 농사 짓는 게 무모하다고 했고, 어떤 이는 왜 좋은 대기업을 관두고 힘든 농사에 뛰어들었냐고 타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대기업 직원 대신 ‘토마토 농부’라는 이름에 더욱 자부심을 갖고 있다. 전라북도 정읍에서 스마트팜으로 토마토 농장을 운영 중인 귀농 7년차 황종운(34) 따옴농장 대표의 얘기다.

황종운 대표가 귀농을 생각하게 된 계기는 가족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아버지’ 때문이다. 정읍에서 20년 넘게 장미농장을 운영하셨던 황 대표의 아버지는 2000년대 후반부터 수입산 화훼가 본격적으로 밀려오고 소비침체가 지속되면서 국내 화훼시장이 위축돼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황 대표는 “화훼농장 운영이 계속 어려워져 결국 부도를 맞고 빚도 지게 됐다”며 “기울어진 가세를 다시 세우고 어려움을 겪는 아버지를 돕기 위해 1년간 고민 끝에 귀농을 했다”고 말했다.

2013년부터 농사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황 대표는 다른 농장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하고 싶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스마트팜’이었다. 당시에는 스마트 온실로 불렀다. 황 대표는 “경험도 없는데 남들과 같은 방식으로 농사를 지으면 경쟁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마침 정읍시가 유리온실 신축사업에 지원을 해 ICT(첨단기술) 시설원예농업으로 유명한 네덜란드의 여러 농가사례를 책이나 자료, 인터넷으로 공부하면서 스마트팜에 눈을 뜨게 됐다”고 전했다.

토마토로 작목을 정하고 스마트팜 운영 공부를 병행하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황 대표에게 첫 2년은 무척 어려운 시기였다. 토마토에 대한 학습과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스마트팜을 적용하려다보니 기대했던 수확량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품질도 팔기 민망할 정도로 좋지 않았다. 가뜰이나 농장을 휩쓴 병충해 때문에 이듬해까지 고생했다.

황 대표는 “2년간은 적자가 계속 났고 토마토를 제대로 팔지 못해 밤잠을 설칠 정도로 무척 어려웠다”고 회상하면서 “토마토의 생육·특성 등 기본적인 작물공부부터 꼼꼼하게 다시 시작했고 지자체 농업기술센터와 시설농가, 인근의 한국농수산대학교 등 스마트팜 교육을 하는 곳은 시간을 만들어 어디든 찾아다니며 열심히 배웠다”고 얘기했다.

그렇게 하나둘씩 배운 지식을 거름삼아 농장에 꾸준히 적용하다보니 토마토 품질도 점차 좋아졌고 수확량도 많아졌다. 특히 ICT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팜 덕분에 생산성이 높아지고 인건비는 절감돼 경영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됐다.

황 대표가 운영하는 따옴농장은 1세대 스마트팜 시설이다. 규모는 약 1만3200㎡(4000평)로 온실환경센서·보온커튼·환경제어모니터링·양액제어기 등의 설비가 갖춰졌다. 구형 온실과 달리 스마트폰과 PC를 통해 토마토 생육에 따라 온·습도와 이산화탄소 등을 자동 제어하는 것은 물론 온실 천정의 창문과 커튼을 원격으로 자동 개폐해 날씨 상황에 맞춰 농장 내외부의 재배환경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다.



황종운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따옴농장 내부. (사진=박성은 기자)

스마트팜 시설 덕분에 수확량은 20% 이상 늘어 3.3㎡당 평균 100kg를 웃돌고 상품화 비율도 90% 이상 높아졌다. 노동시간도 1.5시간 이상 단축됐다. 무엇보다 스마트폰을 몇 번만 조작하면 원거리에서도 생육 환경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다는 게 황 대표의 설명이다.

황 대표는 “농장은 정읍이지만 집은 전주라서 직장처럼 출퇴근하고 있다”며 “스마트팜 덕분에 아버지 때 생각하기 힘들었던 워라밸이 가능하고, 과거 대기업에 다니던 시절 느끼지 못했던 출근길의 기쁨도 함께 누리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농장 운영을 하면서 틈틈이 동호회 활동으로 지금의 아내를 만나 행복한 가정까지 꾸리고 있다.

다만 그는 스마트팜이 작물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농사를 짓도록 돕는 수단일 뿐 만능도구로 맹신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시설농업 특성상 운영 초기에는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야 하고 스마트팜 작동법은 물론 작물에 대한 깊은 공부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것.

또 아무리 좋은 작물을 길러도 판로가 없으면 스마트팜도 무용지물인 만큼 어떻게 소비자에게 판매할지에 대한 마케팅 전략도 필요하다고 황 대표는 강조했다.



황 대표의 경우 첫 3년간 도매시장 위주로 토마토를 납품했지만 현재는 수확량의 90%가 직거래다. 특히 블로그·SNS를 통해 직접 기른 토마토의 생산과정과 신선도를 홍보하고 배송 후 사후관리까지 소비자와 일일이 소통하는 등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대형마트 등과 차별화하고자 갓 수확한 최상급의 토마토만 선별·공급하는 원칙을 고수한 덕분에 단골고객도 제법 많은 편이다.

황 대표는 “제가 시작했을 때와 달리 요즘은 청년농이나 예비농업인 대상의 스마트팜 지원·교육이 다양하고 많다”며 “무작정 큰돈을 들여 스마트팜에 뛰어들기보다는 정부·지자체가 추진하는 실습교육이나 대형 농업법인에서 1~2년 정도 경험을 쌓은 후 소규모로 시작해 리스크는 줄이면서 차근차근 농장을 키우면 충분히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정읍=박성은 기자
parkse@shinailbo.co.kr

실용화재단, '스마트팜 패키지'로 북방시장 개척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3.19 11:59 | 댓글 0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과 수출 계약 '체결'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박철웅)은 '스마트팜 설비+농자재+품종'을 묶은 '스마트팜 패키지'로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에 수출 성과를 거두며 북방시장 진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지난해 5월 '재단-카자흐스탄 국립 과수원예연구소'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스마트팜 시스템·양액시설·온실설비·국내 토마토품종'을 패키지로 묶어 성능을 검증하는 현지 테스트베드 사업 추진의 결과다.

3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총 3건 420만 달러 수출계약을 체결했고, 내달에는 1300만 달러 수출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카자흐스탄 현지 테스트베드 사업 현장에서 생산된 토마토를 시식하고 있다.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은 국가와 민간에서 육성한 우수 품종도 함께 수출하는 전략으로 우리 품종의 로열티 확대에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수출계약에 성공한 스마트팜 설비는 '스마트 개폐기 및 이를 포함하는 스마트 개폐 시스템' 등 농촌진흥청에서 연구된 성과를 활용해 개발된 것으로 이를 수출하게 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기존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등 북방지역의 시설재배 설비 시장은 네덜란드 제품이 장악하고 있었으나, 한국 제품이 성능은 비슷하나 가격 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향후 북방지역 시장 점유율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단은 중앙아시아의 허브 카자흐스탄 테스트베드를 농업분야 북방시장 개척의 플랫폼으로 활용해 '스마트팜 패키지'가 러시아 극동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단은 오는 7월 카자흐스탄 알마티 테스트베드 현장에서 현지 KOTRA 무역관과 협력해 중앙아시아 및 러시아 바이어를 초청해 '스마트팜 패키지' 시연회를 개최하고, 한국 기업들과 수출 상담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방침이다.

임희택 재단 총괄본부장은 "우리가 수출하는 '스마트팜 패키지'는 제품과 성능, 가격 면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농업 수출의 신 시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북방시장 진출이 우리나라 농업분야 수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Tag ▶ #실용화재단 #스마트팜 설비+농자재+품종 #스마트팜 패키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현지 테스트베드 사업 #수출계약 #체결 #북방시장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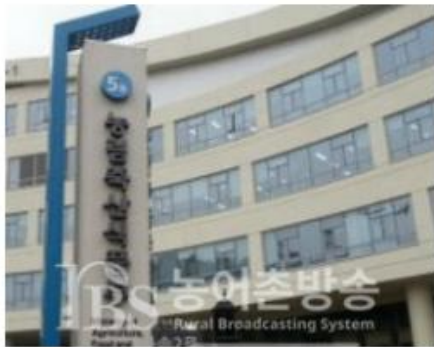
저작권자 © 팜인사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요즘 대세' 스마트팜, 다양한 노지작물 재배에도 적용

농식품부, '노지 스마트영농 모델' 11개 과제 선정해 농작업에 편의성 향상하기로

이경엽 기자 승인 2019.03.05 17:29 댓글 0

[한국농어촌방송=이경엽 기자] 앞으로 일반 노지작물 재배에도 정보통신기술(이하 ICT)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노지 스마트영농 모델' 11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노지 스마트영농 모델개발 사업은 농작업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노지채소, 과수 등 노지작물에 센서, 자동 관수·관비 장비 등을 적용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시설원예와 축산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팜을 노지로 확대하기 위해 작년부터 모델개발 사업을 처음 추진했다.

농식품부는 공모에 응모한 총 13개 과제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평가를 거쳐 강원 태백, 충북 제천·청주, 전북 부안, 전남 신안·영광·곡성·장흥·무안, 제주 제주시 등 10개 시군의 11개 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작물대상을 기존 노지채소에서 노지 작물 전체로 확대함에 따라 배추, 양파, 대파 등 채소 뿐만 아니라 사과, 블루베리, 감귤 등 과수와 특용작물인 삼백초 등 다양한 품목이 선정됐다.

또한 지자체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가 사업 기획·관리에 참여하도록 하여 현장 밀착형 기술지원이 가능해졌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이 노지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가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노지작물에 데이터가 쌓이고 분석기반이 마련되면, 물·비료·병해충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불필요한 농작업이나, 농자재 투입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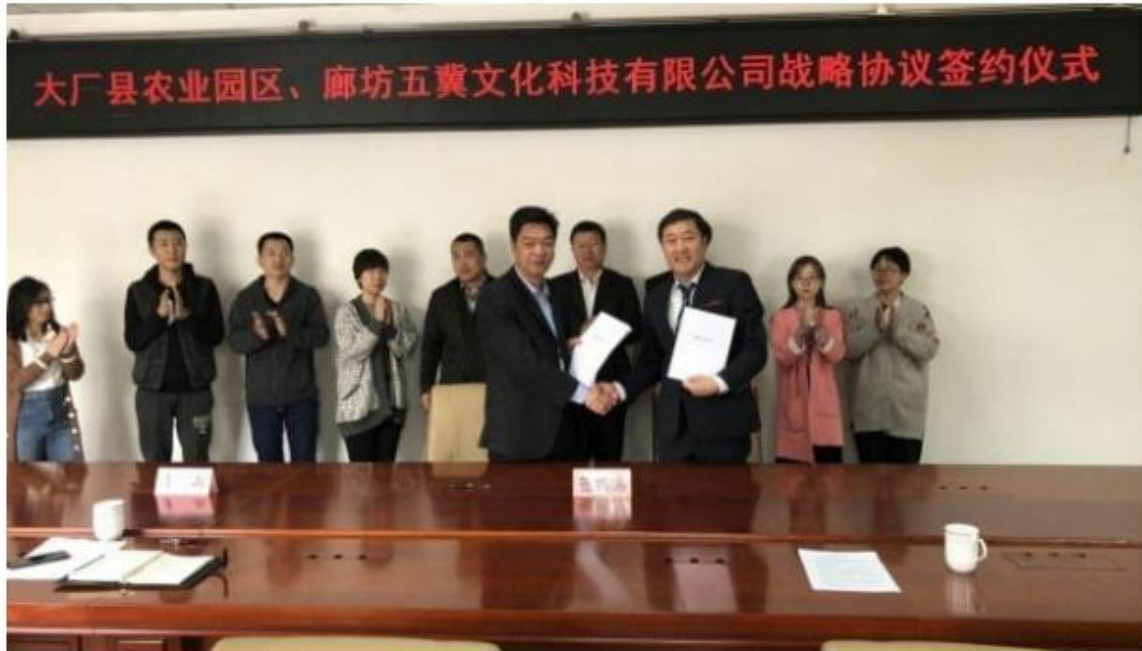
또한, 가격정보·기상정보 등과 연계하면 노지작물의 수급조절이나 재배시기 등 의사 결정에도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모델에 대해서는 향후 농식품부, 농정원, 학계, 연구기관,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컨설턴터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지원단을 구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나아가 지원단을 통해 사업 모델을 보다 구체화하고,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며 향후 성과분석 등을 통해 우수한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경엽 기자 rep05@ctvkorea.com

GCT, 中에 '한국형 스마트팜' 만든다



한국의 스마트팜과 문화, 정신을 한 곳에 담은 프로젝트가 중국 베이징 인근 랑팡시 대창현에서 시작된다. 이른바 한국형 스마트팜이다.

28일 GCT(랑팡오지문화과기유한공사)는 랑팡시 대창현 정부와 한국형 스마트팜 건설을 위한 계약을 체결 했다고 밝혔다. 추진 3년 만에 맺는 결실이다.

랑팡시 대창현은 베이징과 천진, 허베이성을 포함한 중국 수도권개발전략으로 불리는 '경진기'의 핵심 지역이다. GCT는 식품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중국에서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해 재배한 유기농식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베이징 주변 100개 이상의 특급 호텔과 수도권 지역 중산층 이상의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게 목표다.

GS건설, '스마트팜' 신사업으로 추진

기사입력 2019-03-22 11:33:03. 폰트 + -

50기 주총...김경식 국토부 1차관, 김진배 고대 교수 사외이사 신규 선임



GS건설이 농업시설을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팜' 시장에 진출한다.

GS건설은 22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GS건설 본사에서 '제50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신사업으로 농업시설물과 스마트팜 설치 등을 추가하는 정관 일부 변경안을 의결했다.

스마트팜은 농업의 생산·가공·유통·소비 전반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생산 효율성이 높은 농장을 말한다. GS건설의 스마트팜은 현재 전력사업본부에서 추진 중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사장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사장은 “앞으로 기존 사업의 내실을 다져 수익성을 높이고 동시에 중장기 성장동력을 지속 발굴해 최고의 가치와 만족을 제공하는 GS건설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날 주총에서는 임 사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한편, 사외이사로는 김경식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김진배 고려대 경영대 교수를 신규 선임했다. 김진배 사외이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도 선임됐다.

또 현금 배당 규모를 보통주 1주당 100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전기(300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총 배당금액은 787억원이다.

임 사장은 “변동성이 높은 단순시공 위주 사업에서 벗어나 투자개발형 사업이나 운영·유지보수 사업을 더 확대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적인 신사업 추진으로 앞으로 3~4년 후에는 현재와는 다른 사업구조를 가진 회사로 변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주총에서는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보수 한도 승인 3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가ACM,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건축설계' 당선

기사입력 2019-03-26 05:00:12. 폰트 + -

핵심시설 독립성 · 연계성 고려한 배치계획 돋보여



<사진설명> 이가ACM가 설계한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핵심시설'의 투시도(이가ACM 제공)

(주)이가ACM건축사사무소(이하 이가ACM)가 추정설계비 11억원의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핵심시설 건축설계 용역'의 실시설계권을 확보했다.

25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최근 경북지역본부가 제안 공모한 이 용역에 대한 심사 결과, 이가ACM이 최고점을 받아 무영건축, 현대연합건축 등 5곳을 제치고 당선됐다.

이가ACM은 70%의 지분을 갖고 (주)울그룹건축사사무소(30%)와 짝을 이뤄 이번 공모에 참여했다.

이가ACM은 교육, 생산, R&D, 빅데이터, 수출 확대 등에 대한 연계를 강화해 기능성과 경제성을 고루 갖춘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계획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핵심시설인 청년보육시설(실습농장) 및 실증형 스마트팜, 임대형 스마트팜 간 독립성 및 연계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과 일조를 감안해 남쪽으로 5m씩 레벨 차를 뒤 관리동에 의한 음영을 최소화한 임대형 온실 단차계획이 돋보였다.

또 평면계획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성격별로 분리하고, 지원센터는 분절된 매스와 기능별 조닝을 통해 이용자별 명확한 동선을 확보했다.

아울러 온실계획은 관리동 통합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폐양액 및 우수 재활용을 통해 농업용수를 하루 평균 40% 이상 절감해 유지관리비를 절감토록 설계했다.

‘경북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은 경북 상주시 사벌면 엄암리 일대에 △청년보육시설(실습농장) 연면적 4만3506.52㎡ △임대형 스마트팜 연면적 6만5752.98㎡ △실증단지(실증온실, 지원센터) 연면적 4720㎡ 등을 짓는 것으로, 추정공사비는 488억원이다.

"장애청년 위한 스마트팜 건립에 써달라"...30억 상당 토지 기부

CBS노컷뉴스 문수경 기자 | 2019-03-27 15:17



0

3

가



발달장애아 키우는 이상훈 대표·장춘순 이사, 여주시 땅 3,600평 기부

푸르메스마트팜 2020년 하반기 완공 목표, 건축비 40억원 모금 캠페인 본격화



기부약정식에 참석한 이상훈 대표, 장춘순 이사, 백경학 상임이사(오른쪽부터). 사진=푸르메재단 제공

발달장애 아들을 키워온 60대 부부가 비슷한 처지의 청년들을 위해 행복한 일터를 지어달라며 토지 4천여 평을 기부했다.

경기도 여주시에서 친환경 표고버섯 농장 우영농원을 운영해온 이상훈 대표(66)와 장춘순 이사(62) 부부는 26일 푸르메재단(이사장 강지원)을 찾아 해당 농원과 그 일대 부지 11,800 m²(약 3,600평)의 소유권 전부를 기부하기로 약정했다.

발달장애 아들(32)을 둔 부부는 "우리가 세상을 뜨면 혼자 살아야 하는 아들이 농장을 통해 자립의 길을 찾길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귀왔지만 두 사람의 힘만으로는 버거운 일이었다"며 "믿을 수 있는 공익재단에 사업을 맡겨 더 큰 사회적 자산으로 발전시키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 내 아이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 행복하길

아울러 "이 프로젝트를 통해 내 아들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에 고립된 발달장애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는 소망을 피력했다.

이상훈 대표는 푸르메재단이 발달장애 청년을 위한 대안적 일자리 모델로 추천해온 푸르메스마트팜 건립 캠페인을 접하고 기부를 결심했다.

장춘순 이사는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이 장애어린이 재활치료에 있어 국가정책의 모델이 되었는데, 푸르메스마트팜이 장애청년 일자리의 본보기가 되어 발달장애인 부모들에게 희망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건축비 40억 원 모금 캠페인 본격화

푸르메재단은 딸기와 토마토 등을 키우는 첨단 스마트팜에 가공 및 판매시설, 카페와 레스토랑, 체험교육장까지 결합한 푸르메스마트팜을 건립한다.

백경학 상임이사는 "푸르메스마트팜은 1차, 2차, 3차 산업을 아우르는 이른바 6차 산업형 일터로서 발달장애 청년을 위한 직무가 많이 생길 것"이라며 "기부해주신 땅 위에 300명의 장애청년이 일하고 배우며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농장을 짓겠다"고 말했다.

푸르메재단은 2020년 하반기 완공이 목표인 푸르메스마트팜 건축비 40억원 모금 캠페인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고흥군, 1100억원 규모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 확정

지난해 도전 실패 설욕, 미래농업 선도·소득 창출 혁신단지로 성장

미보아스 기자 승인 2019.03.28 15:03 댓글 0



고흥군청 전경 사진제공=고흥군

[매일일보 미보아스 기자]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일손 부족 해소와 청년농 육성을 위해 대규모 정책사업으로 추진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사업 심의 결과, 고흥군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남 고흥을 비롯해 강원 춘천, 경기 파주, 충북 제천, 경남 밀양 등 5개 시·군이 유치전에 뛰어 들었으나, 사업 입지조건에 대한 현장평가와 사업계획의 타당성, 중앙정부 정책의 부합성 등의 대면평가에서 치열한 경쟁 끝에 고흥군이 최종 선정되었다.

더구나, 고흥군은 ‘민선 6기’인 지난해 3월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에 응모하였으나 전남도 심사(‘18년 6월)에서 탈락해 많은 아쉬움을 남긴 바 있다.

송귀근 군수 취임 이후 ‘민선 7기’ 들어 전남도에서 탈락한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사업계획을 보완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결과, 3월 28일 고흥군 유치가 확정되어 지난해 도전의 실패를 설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하겠다.

이번 공모사업 유치 성공은 ‘민선 7기’ 출범 10개월 만에 거둔 획기적인 성과로서 중앙부처 사업 선정에 대응하는 요령과 노하우에 대한 송 군수의 풍부한 행정 경험, 인맥을 바탕으로 열성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한 결정체로 풀이되며, 이 점이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스마트팜 관련 생산·교육·연구 등 종합적인 기능을 갖춘 사업으로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고흥만 간척지 일원에 30ha 규모로 총 사업비 1,100억 원을 투자하는 고흥군 유사 이래 최대 규모의 사업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 사업은 교육과 경영·실습형 청년보육센터를 비롯한 창농·창업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최첨단 농자재 검·인증 등을 위한 실증단지, 지역민과 함께하는 주민 참여형 온실 조성 등 유통시설과 농촌 주거여건 개선과 연계한 복합 패키지 형태로 추진될 계획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과 조기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고흥군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농협, 대학, 기업 등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송 군수의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그 동안 국회·중앙부처·전남도를 끊임없이 방문하여 고흥군 사업입지의 우수성과 당위성을 강조하였고, 현장평가 시에도 송 군수가 강력한 추진의지를 피력한 결과, 본 사업의 유치 성공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송 군수는 “피나는 노력 끝에 일궈 낸 결과인 만큼,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사업 추진에 강한 의욕을 내비쳤다

고흥군 관계자는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농업 발전에 대한 열망과 자신감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라는 쾌거를 이뤄냈다”며 “혁신밸리가 지역 농가소득을 늘리고 청년들이 창농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밀양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 노수윤기자 | ⌚ 승인 2019.03.28 18:53 | 📄 1면 | 💬 댓글 0

경남도, 경기 등 4개 도와 치열 경쟁 끝에 유치
삼랑진 47.4ha 총 876억원 투입 2022년 완료
지역경제 활성화시설원에 메카로 도약 계기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 사업 대상에 경남도가 응모한 밀양시 삼랑진을 임천리 일대 47.4ha가 최종 확정됐다. 시설원에 메카로서 경남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지난 1월 공모사업 공고 이후 지금까지 경기, 강원, 충북, 전남 등과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였고 마침내 이같이 확정됐다고 28일 밝혔다.

도와 밀양시와 함께 추진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876억원(국비 524억원)을 투입해 '나노기술을 활용한 수출주도형'으로 조성한다.

오는 8월까지 토지 보상과 인허가 작업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기반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밀양시 삼랑진은 KTX 밀양역, 중앙고속도로 등 도로교통망 발달로 접근성이 우수해 최적지로 평가받았다.

특히 밀양강과 인접해 2급수의 농업용수를 사계절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인근 밀양시 하수처리장의 폐열을 공급받아 난방 열로 활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점수를 받았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중 4.3ha에는 청년 농업인 보육을 위한 교육형 실습농장과 경영형 실습농장, 5.4ha에는 임대형 스마트팜, 2.1ha에는 기술혁신을 위한 실증단지(나노, 기자재, 품목다변화 실증) 등 핵심시설을 조성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농업인시설 스마트팜화, 농촌형 청년보금자리 조성, 스마트 APC, 밀양시 공공급식센터 등 연계시설도 조성한다.

농민단체가 우려하는 거대한 기업형 생산단지 신규조성은 않는다.

생산과잉에 따른 판로문제 등 유통구조와 판매시스템 문제의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농산물수급안정담당과 지역푸드플랜담당을 신설하고 과잉 생산농산물의 수급안정과 유통체계 개선 역할을 추진 중이다.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생산하는 미니파프리카, 딸기, 토마토는 대부분 수출할 계획으로 내수에 미치는 영향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이 완료되면 교육에서 생산, 유통, 판매, 관광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생태계가 구축되고 농촌 정주여건 개선, 인구 및 방문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성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27만 농업인의 지역 농업 발전에 대한 염원으로 지역사회 전체의 협력과 지지로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통해 청년이 농촌으로 돌아오고 농업과 전후방 산업이 동반 성장하는 혁신모델을 경남이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수윤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수윤기자

[다른기사 보기](#)

【내포】충남농기원, '충남 특화작목의 미래' 스마트팜 활용에 달렸다

27일 도 농기원 세미나...스마트팜 이해와 확산방안 등 논의

주향 기자 news@newseyes.co.kr | 등록 2019.03.28 10:08:18



[sbn뉴스=내포] 주향 기자 =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ICT 융복합 스마트팜의 정책방향과 현장활용, 최신재배기술 동향을 전파하여 조기 확산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나섰다.

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27일 스마트팜 농가, 4-H회원, 관련 연구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ICT 융복합 스마트팜의 이해와 확산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농업 현장에 확대되고 있는 ICT 융복합 스마트팜의 이해와 확산 방안을 찾고자 마련된 것으로, 농업 미래성장 산업화 ICT융복합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날 충청남도청 신장철 주무관은 '충남형 스마트 원예산업 육성계획을 단계별로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산업으로 육성'하는 정책방향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고, 나루농업컨설팅 이정필박사는 '작물생육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 생산성 및 품질을 높이는 최신 기술'을 설명하였으며, 서브스트라투스코리아 김성은 대표는 '온도, 습도, 광 등의 환경관리를 통한 토마토, 오이 작목의 최신 재배기술'에 관해 발표했다.

도 농업기술원 스마트농업팀 이원근박사는 "이번 세미나는 충남 스마트팜의 기술향상과 확산을 위한 발판을 만들어 주었다"며 "앞으로 충남이 농업환경에 적합한 실용적인 스마트팜 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산시, 스마트농업도시 추진상황 간담회 개최



경산시는 27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지난해 준비한 경산발전 10대 전략 가운데 한 분야인 2019년도 상반기 스마트농업도시 추진상황 간담회를 개최했다.

스마트 농업도시 추진협의체 위원 및 협력자문단과 전략과제 업무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참석위원 소개에 이어 스마트농업분야 20개 주요 과제에 대한 해당부서장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와 분과위원장 선출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보고된 주요 과제로는 스마트 농기계클러스터, 농-테크 교육훈련센터, 스마트 클린 축산 프로젝트, 경산 스마트 팜 등 20개 과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경산 농업의 스마트화를 앞당기기 위한 추진협의체 위원들의 의견수렴은 물론 전략과제 담당 공무원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가 되었다.

한편, 김종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경산발전 10대 전략은 우리 시의 미래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농업 분야의 전략인 스마트 농업 도시 구현을 위한 추진협의체 위원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혜, 그리고 아이디어 제공을 요청했다.

경산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서귀포농기센터, 농가 5곳 스마트팜 보급

승인 2019.03.29 13:42 신문 3093호(2019.04.02) 12면

[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신양수)는 올해 5개 농가에 스마트팜 기술을 보급한다고 밝혔다.

서귀포농기센터는 75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인터넷이 가능한 서귀포지역 시설 하우스 농가 중 시범사업 대상 5개소를 선정해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스마트팜 기술을 보급하고 있다.

서귀포농기센터는 해당 농장에 영상녹화장치, 온습도 및 환기, 관수관비, 열풍기 등 하우스 환경제어 자동화 시스템을 조성할 예정이며, 토양수분, 온습도, 일사, 이산화탄소 등 시설 내 생육환경 정보 데이터 축적을 통해 생육 시기별 자동 정밀관리기술을 구축할 계획이다.

서귀포=강재남 기자 kangjin@agrinet.co.kr

홈 > 충청 > 괴산

괴산군, 스마트농업 선도

2억 들여 영농 체험 교육장 조성
3960㎡ 규모 관제시스템 등 구축
신소득 아열대작물 재배 구현

곽승영 기자 | focus5052@naver.com



승인 2019.03.31 16:50:27



▲ 스마트팜 네트워크.

[괴산=충청일보 광승영기자] 충북 괴산군은 올해 예산 2억여 원을 투입, 군 농업기술센터 내 스마트팜 농가 육성을 위한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이란, 4차 산업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영농 체험장을 말한다.

군은 스마트농업 확산 및 보급을 위해 그동안 연구 개발한 결과를 실증하고, 농업인들이 실용적인 스마트농업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오는 5월 군 농업기술센터 내 아열대과수를 시험 재배하던 총 3960㎡ 규모의 연동하우스 4동에 △스마트온실 △데이터 수집을 위한 관제시스템 △스마트농업 전문가 육성 교육장 등을 짓는 공사에 착수한다.

군은 이번에 조성되는 첨단교육장이 생육데이터의 수집·분석·활용 등 체계적 관리를 가능케 해 미래 농산업 인프라 확충은 물론 4차산업 농업분야 스마트 영농기술 보급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번 기회에 기후온난화에 대응해 발굴 중인 신소득 아열대작물을 스마트농업으로 재배할 수 있는 체계도 수립한다는 게 군의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조성되는 스마트농업 첨단교육장은 스마트농업을 농업현장에 널리 보급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을 농업현장에 접목해 농가소득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속적인 농업기술 축적과 관리로 빅데이터 기반을 구축, 괴산형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발굴과 확대·보급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